

이 숙 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주의하기에 관한 연구

200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노 경 남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주의하기에 관한 연구

이 숙 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노 경 남

인 준 서

노경남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본 연구는 가정에서 놀이감을 가지고 자유 놀이하는 영아와 어머니 상호주의하기에서 어머니 주도행동 유형(소극적 개입, 유지, 확장)에 따른 영아의 반응행동과 주도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밝힘으로써, 영아기의 사회인지적 상호작용의 발달특성을 설명하고, 영아와 어머니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영아와 어머니의 놀이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상호주의하기에서 어머니 주도행동은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는가?
2. 상호주의하기에서 어머니의 주도행동 유형에 따른 영아 반응행동은 어떠한가?
3. 상호주의하기에서 어머니 주도행동 유형에 따른 영아 주도행동은 어떠한가?
4. 상호주의하기에서 영아와 어머니 놀이행동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본 연구는 12~18개월(평균15.8개월) 영아 60명(남:28명, 여:32명)과 그들의 어머니 총 60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영아와 어머니 간 상호주의하기에서 나타난 주도행동과 반응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Newland, Roggman 과 Boyce(2001)의 측정도구를 수정·사용하였다.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을 각 15분씩 비디오로 녹화하여 시간표집으로 코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문제에 따라 군집분석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후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고, 상호작

용에서 나타나는 영아와 어머니 놀이행동을 사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주의하기에서 영아의 주의를 전환시키고자 하는 어머니의 주도 행동은 ‘소극적 개입’, ‘유지’, ‘확장’ 등의 세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둘째, 어머니 주도행동 유형별 영아의 무관심 반응과 탐색 행동은 어머니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 집단 어머니의 영아들이 무관심 반응을 가장 많이 나타냈고, ‘소극적 개입’ 집단 어머니의 영아들은 탐색반응을 가장 많이 나타냈다.

셋째, 어머니 주도행동 유형별 영아의 주도행동은 소극적 관심표현과 적극적 관심표현 행동이 어머니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관심표현은 ‘확장’ 집단 어머니들의 영아들이 가장 많이 나타냈고, 적극적 관심표현은 ‘소극적 개입’ 집단 어머니들의 영아들이 가장 많이 나타냈다. 그러나 세 집단 어머니의 영아들은 전반적으로 소극적 관심표현 보다 적극적 관심표현 행동을 더 많이 나타냈다.

넷째, 영아들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서 놀이감에 접근하기, 놀이감의 속성에 흥미보이기, 놀이감 사용에 따른 문제해결 요구하기, 놀이감을 다른 용도로 대치하기, 몸짓과 표정으로 신호보내기 행동을 나타냈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영아의 놀이에 참여하기, 영아의 가상적 놀이 지원하기, 언어적 표현으로 놀이 확장시키기, 영아의 애정적 표현 증가시키기 등의 놀이행동을 나타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5
3. 용어의 정의	5
II. 이론적 배경	6
1. 상호주의하기	7
1) 상호주의하기의 개념	7
2) 상호주의하기의 발달	10
2. 놀이감 중심의 영아와 어머니 상호주의하기	12
3. 관련연구	16
III. 연구 방법	19
1. 연구대상	19
2. 연구도구	20
3. 연구절차	22
4. 자료분석	24

IV. 결과 및 해석	25
1. 상호주의하기에서 어머니의 주도행동 유형 분석	25
2. 어머니 주도행동 유형별 영아의 반응행동	27
3. 어머니 주도행동 유형별 영아의 주도행동	29
4. 상호주의하기에서 영아와 어머니의 놀이행동 분석	31
V. 논의 및 결론	45
1. 논의	45
2. 결론 및 제언	51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차

<표1> 놀이감 목록	20
<표2> 측정도구의 범주 및 행동에 대한 정의	21
<표3> 어머니 주도행동에 대한 군집분석 결과	25
<표4> 영아 반응행동의 평균, 표준편차 및 분산분석 결과	27
<표5> 영아 주도행동의 평균, 표준편차 및 분산분석 결과	2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영아가 생의 초기에 만나는 중요한 사회적 대상은 어머니이다.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은 애착과 같은 사회정서적인 측면뿐 아니라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며, 이후의 학습과 발달에 원천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Hart & Risley, 1995). 이와 관련하여 최근까지 초기 영아와 어머니 상호작용이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Dunham & Dunham, 1992; Laasko, Poikkeus, Eklund & Lyytinen, 1999; Saxon, 1997; Smith, Landry, Swank, Baldwin, Denson, & Wildin, 1996; Tamis LeMonda & Bornstein, 1989; Tomasello, 1990)과 인지발달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Flavell, 1992; Messer, 1994; Rogoff, 1990; Rutter, 1985; Vygotsky, 1978)등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사회성발달에서 시작된 영아와 어머니간의 상호작용이 언어나 인지 등 다른 영역의 발달을 예측하기 위한 변인으로써 더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그러나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초기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재해석으로 이러한 능력이 언어적 의사소통으로의 대체가 아니라 언어이후의 시기에 계속 지속되는 독립적 영역으로 이해하게 되었다(Petitto, 1988). 그리고 사회적 관계 내에서 직접 관찰될 수 있는 사회인지 발달의 전조로써 의미 있는 행동들로 재 연구되기 시작하였다(Crockenberg & Litman, 1990; Mundy, Hogan, & Doehring, 1996; Landry, Smith, & Swank, 1997).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서 관찰할 수 있는 초기 영아의 사회적 능력은 영아가 먼저 어떤 요구를 시도하는 능력인 주도성과 어머니나 다른 양육자의

요구에 반응하는 능력인 반응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능력은 영아기 이후의 사회적 교환에 필요한 기술로 영아 초기부터 개인차가 나타난다(Landry, Garner, Pirie, & Swank, 1994; Landry, Smith, & Swank, 1997). 또한 영아와 어머니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요구를 하거나 반응을 하는 양자적인 상호작용보다 영아와 어머니 이외에 사물이나 사람, 사건 등 제3의 대상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삼자적 상호작용에서의 행동들이 더 높은 수준의 사회인지적 능력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Tomasello, 1995). 이러한 영아기 삼자적 상호작용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상호주의하기(joint attention)이다.

상호주의하기는 영아가 흥미 있는 사건이나 대상에 대한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기 위해 눈맞춤과 몸짓을 사용하는 능력으로(Mundy, Sigman, & Kasari, 1994; Moore & Dunham, 1995; Corkum & Moore, 1995), 언어 이전에 나타나며 영아기 초기부터 발달한다. 타인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영아의 상호주의하기 능력은 4세 이후에 나타나는 수용 언어 능력과 상관이 있으며(Charman, Swettenham, Baron-Cohen, Cox, Baird, & Drew, 1997; Tomasello, 1995), 타인의 마음을 읽는 전조행동(Baron-Cohen, 1995b)으로 사회인지적 과정을 반영하기 때문에 영아기 중요한 발달 지표가 된다. 상호주의하기에서는 주의 단서에 의해 상대방의 주의를 전환하는 주도적 행동과 주의를 따라가는 반응행동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때 놀이감은 영아와 어머니의 주도성과 반응성을 관찰할 수 있는 적절한 매개체가 된다. 특히, 일상적인 상황에서 보다는 놀이감을 가지고 자유놀이 하는 상황이 영아-놀이감-어머니의 삼자적 관계에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상호주의하기에 의한 양자의 반응성과 주도성을 관찰할 수 있는 적절한 상황이 된다(Landry, Smith, & Swank, 1997).

놀이감을 가지고 영아와 상호작용할 때 어머니의 행동은 영아의 연령에 따라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즉, 초기에는 영아의 놀이 참여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어머니의 주도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나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영아의 주도에 따르는 어머니의 반응행동이 더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어머니 행동의 변화는 영아를 놀이에 참여시키기 위해 영아의 발달적 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책략 사용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Newland, Roggman, & Boyce, 2001). 또한 영아기 사회적 상호작용의 발달적 과정은 영아의 개별적 특성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반응에 따라 그 흐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영아와 어머니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어 최근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에도 영아와 어머니 상호작용을 사회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가 다시 시작되고 있고, 상호주의하기에 관한 연구들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Csibra, Gergely, Biro, Koos & Brockbank, 1999; Dunham & Moore, 1995; Newland, Roggman, & Boyce, 2001; Landry, Smith & Swank, 1997; Rochat & Morgan, 1998; Saxon, Clombo, Robinson & Frick, 2000; Tomasello, 1995; Woodward, 1998, 1999). 상호주의하기에 관한 국내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폐아와 반응성 애착 장애아 등 장애아를 주 연구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곽승철·이영옥, 2003; 김영미, 2003; 김지연, 2002; 송은정, 2000; 신현정, 1997; 정석진, 2000; 주세진, 2005; 차숙영, 2003), 최근 들어 정상영아를 대상으로(김민화·곽금주, 2004; 곽금주·김민화·한은주, 2004)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정상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자유놀이 상황에서 6,7개월 영아와 12개월 영아의 사회인지적 상호작용 양상을 밝히기 위해 상호주의의 주도성과 반응성, 의사소통능력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대상의 월령이 초기 영아기에 초점을 두어 영아기 전반에 걸친 사회인지적 능력의 발달 특성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12개월 이후 영아의 상호주의하기에서 나타나는 주도행동과 반응행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초기 영아기 사회인지적 능력의 발달 특성과 비

교·분석을 통해 초기 뿐 아니라 중기 영아기 사회인지적 능력의 발달 특성을 밝히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영아와 어머니의 사회적 상호작용 유형뿐 아니라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상황내의 내용과 반응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상호작용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누가 주도하는지, 그 주도에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영아와 어머니 상호작용의 의미를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영아와 어머니 상호작용을 관찰한 장소가 실험실(김민화·곽금주, 2004; 곽금주·김민화·한은주, 2004)이므로 주변 환경에 민감한 영아에게 정서적 긴장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영아와 어머니가 정서적 긴장감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놀이에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가정의 자유 놀이 상황에서 12-18개월 영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상호주의하기의 반응행동과 주도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여기서 나타나는 영아와 어머니 상호작용의 내용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영아기의 사회인지적 상호작용의 발달 특성을 설명하고, 영아와 어머니 놀이행동 이해의 근거를 제공할 뿐 아니라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바람직한 상호작용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놀이감을 매개로 한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주의하기에서 주도행동과 반응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 영아와 어머니 상호작용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정하였다.

- 1) 상호주의하기에서 어머니 주도행동은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는가?
- 2) 상호주의하기에서 어머니의 주도행동 유형에 따른 영아 반응행동은 어떠한가?
- 3) 상호주의하기에서 어머니 주도행동 유형에 따른 영아 주도행동은 어떠한가?
- 4) 상호주의하기에서 영아와 어머니 놀이행동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3. 용어의 정의

- 1) 상호주의하기(joint attention)

상호주의하기를 주도행동과 반응행동으로 나누고(Newland, Roggman & Boyce, 2001) 어머니와 영아, 놀이감의 삼자적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주도행동과 반응행동의 빈도를 측정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고, 지각하고, 추론하며, 반응하는지에 대하여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는 사회인지에 관한 연구들은 초기에 Piaget 학파들에 의해 자기중심성, 감정이입, 조망수용과 같은 틀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귀인이론 외에도 메타인지와 마음의 이론 등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인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Yate, 2002). 연구자들에 따라 이러한 사회인지 능력을 사회적 참조(Russell, Bard & Adamson, 1997), 감정이입(Baron-Cohen, 2004; Young, Fox & Zahn-Waxler, 1999), 상호주의하기(Baron-Cohen, 1995; Carpenter, Nagell & Tomasello, 1998; Mundy, 1995), 조망수용능력(Selman, Beardslee, Schultz, Krupa, & Podorefsky, 1986; Beardslee, Schultz, & Selman, 1987) 등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영아의 사회인지 능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Charman, 1997; Landry, Smith, & Swank, 1997).

현재 사회인지 연구의 주요 관심은 영아가 타인을 의도를 가진 존재로 이해하고 외부 대상과 사건에 대한 타인의 주의와 행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하고 따라가며 지시할 수 있는가 인데(Tomasello, Kruger & Ratner, 1993), 생후 9개월경부터 나타나는 사회적 참조와 상호주의하기가 대표적인 것이다(Carpenter, Nagello & Tomasello, 1998).

영아가 타인을 의도를 가진 존재로 이해하고 타인이 어떤 바람이나 믿음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타인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함께 주의를 공유하는 능력이 상호주의하기이다(Tomasello, Kruger & Ratner, 1993). 영아기 상호주의하기 능력의 발달은 수용언어 능력과 상관이 있으며(Charman, 1997; Tomasello, 1995), 4세 이후 나타나는 타인의 마음을 읽는 전조행동으로 알려져 있다(Baron-Cohen, 1991b).

1. 상호주의하기(joint attention)

1) 상호주의하기의 개념

상호주의하기(joint attention)는 영아와 타인이 같은 대상이나 사건에 주의를 공유하는 것과 같은 호혜적인 상호작용을 의미한다(Patterson, 1996). 이는 영아가 흥미 있는 사건이나 대상에 대한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기 위해 눈맞춤과 몸짓을 사용하는 능력으로(Seibert, Horgan, & Mundy, 1982),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다른 사람의 주의를 탐지하고 따라가려는 시도, 즉 시선 주시(gaze monitoring), 지적하기(pointing), 주기(giving), 보여주기(showing) 등이 상호주의하기 행동에 포함 된다(Baron-Cohen, 1995).

상호주의하기에서의 주의(attention)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시각 영역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떤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그 대상에 흥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하므로, 주의 그 자체가 마음 상태라 할 수 있다. 또한 상호주의하기는 흥미 있는 대상을 선택적으로 바라보는 마음 상태로서 주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하므로 마음 이론 발달에 있어 초기 단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Baron-Cohen, 1995). 따라서 상호주의하기의 인지 과정은 마음 이론의 발달적 전조를 포함하고 있으며, 타인의 내적인 심리 과정을 표상하는 능력 발달의 초기 지표가 된다(Baron-Cohen, 1989). 이러한 상호주의하기의 초기 출현은 생후 9개월경으로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 사물을 함께 보거나 영아 자신이 보는 물건을 어머니가 보도록 어머니와 사물을 번갈아보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다(Mundy, Sigman & Kasari, 1990). 생후 9개월 이전에 보이는 영아의 행동 중 상호주의하기로 볼 수 있는 양상들을 살펴보면, 첫째,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타인과 같은 사물을 바라보고 있지만 다른 측면에 주의하고 있는 것이 한 예이다. 이런 경우 각자는 상대방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을 서로 모르

기 때문에 단순히 동시에 주시가 일어난 것이지 진정한 의미의 상호주의하기는 아닌 것이다. 둘째, 다른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곳을 바라보았더니 재미있는 결과가 있었다는 조건화된 시선은 영아가 타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면에서 역시 진정한 의미의 상호주의하기로 볼 수 없다. 셋째, 타인이 집중하고 있는 사물을 쳐다보다 타인이 움직이거나 말을 하면 타인을 쳐다보고, 다시 사물이 움직이면 주의를 사물로 이동시키는 것도 역시 상호주의하기라고 할 수 없는데 여기서도 영아는 사물에 집중하고 있는 타인의 주의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호주의하기는 단순히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같은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아는 자신의 주의를 사물과 타인에게 동시에 보이며 타인 또한 자신의 주의를 사물과 영아에게 동시에 집중시키는 것으로 서로의 일치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Tomasello, 1995).

이러한 상호주의하기는 언어 이전에 발달하며 영아와 성인 그리고 대상 사이의 삼자(triadic) 관계를 포함 하는데(Bakeman & Adamson, 1984), 영아기 삼자적 상호작용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상호주의하기(joint attention)이다.

상호주의하기와 같은 삼자 관계에 대한 표상은 도구적 기능을 가진 요구적(imperative) 삼자 표상과 대상이나 사건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려는 서술적(declarative) 삼자 표상이 있는데,(Gomez, Sarria, & Tamarit, 1993; Baron-Cohen, 1987; Leslie, 1993) 전자를 요구행동, 후자를 상호주의하기이다(Baron-Cohen, 1993).

요구행동은 어떠한 물건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사용하는 것으로 눈맞춤과 몸짓을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놀이감을 갖기 위해 상대방에게 눈맞춤을 보이는 것으로 놀이감이 작동할 때 상대방과 눈맞춤을 하는 상호주의하기와는 구별되는 행동이다. 요구 행동과 상호주의 행동은 두 행동이 모두 삼자적인 표상이라는 점에서 표면적으로 유사하지만, 상호주의

행동은 도구적인 기능을 가지지 않으며 서술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상호주의하기에서는 상호작용의 반응성과 주도성이 상대방의 주의 단서에 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영아와 어머니 중 어느 한쪽이 상호작용의 기회를 잡기 위한 시도로써 상대방이 현재 초점을 두고 있는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주의적 단서를 따라갈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주의 따르기(attention following)가 되며, 반대로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주의를 한 사물에서 다른 사물로 옮기기 위해 더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주도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주의 전환(attention switching)이 된다(Tomasello, 1992). 여기서 주의 따르기는 상대방에 대한 반응 행동이 될 수 있으며, 주의 전환은 상호작용의 주도적인 시도 행동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삼자간 상호주의하기 유무를 측정하는 과제로는 첫째, 영아가 놀이감을 가지고 노는 동안 영아의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는 블로킹 과제(blocking task), 둘째, 영아에게 놀이감을 가지라고 내밀어 주고 영아가 놀이감을 가지려고 손을 뺄는 순간 얼른 잡아당기며 장난치는 과제(teasing task), 마지막으로 버튼으로 작동되는 놀이감을 영아에게 보여준 후 영아가 작동하고 있는 놀이감에 집중하고 있을 때 버튼을 꺼버리는 과제(active-toy task)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 과제의 목표는 영아가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혹은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타인과 눈맞춤을 하는지 보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아가 손을 뺄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눈을 바라본다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자신과 다른 의도를 가진 존재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Baron-Cohen, 1993; Gomez, Sarria & Tamarit, 1993).

2) 상호주의하기의 발달

상호주의하기 행동은 영아가 어머니의 주위에 따르는 능력과 어머니에게 상호 주의하기 행동을 시도하는 행동으로 나누어진다(Charman, 1997). 전자는 다시 상호주의에 대한 반응으로 타인의 시선 방향을 보고 이해하는 것과 지적하기에 따라 대상을 쳐다보는 것으로 구분되며, 후자는 타인에게 자신의 흥미와 관심을 나타내기 위해 지적하기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어린 영아들은 자아 중심적이라고 생각되어 타인의 시선을 따르는 것이 어려우며, 또한 8, 9개월 이하의 영아들은 주의 집중이 힘들어 성인과 주의를 공유하는데 어려움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왔다. 그러나 Mundy(1990)가 2개월 된 영아도 어머니의 시선 방향의 변화에 대해 자신의 시선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아주 어린 영아조차도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주의하기가 성인과 영아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 호혜적인 측면을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김지연, 2002 재인용).

Butterworth(1991)는 6-18개월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엄마의 시선 변화에 대한 영아의 반응 방향과 정확성에 대한 연구에서 6개월 된 영아는 어머니의 시선 변화에 대해 올바른 방향을 쳐다볼 수는 있으나 정확하게 목표 사물을 찾아내지 못했으며, 시선의 변화가 자신의 시선 내에 있을 때만 반응을 보였다. 12개월의 영아는 어머니의 시선 방향으로부터 대상의 위치를 파악하여 정확하게 쳐다보는 것이 가능하지만 역시 자신의 시선 내에 있는 사물에 대해서만 정확한 반응을 할 수 있었다. 영아가 18개월이 되면 시선 변화에 대한 정확한 반응 뿐 아니라 목표 물체가 영아의 시선 뒤쪽에 있을 때에도 올바른 반응을 보여줌으로써 표상적인 능력이 상당히 발달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시선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상호주의하기 반응으로서 지적하기에 대한 이해는 9~12개월 사이에 발달하며 목표 물체가 멀리 있을 때보다는 가까이 있을 때 더 많은 반응을 보인다. 영아의 지적하기에 대한 이해와 시선 방향에 대한 이해는 서로 관련되어 나타나는데, 12개월의 영아에게 시선의 변화와 더불어 지적하기 행동이 동반되었을 때 영아의 반응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된다는 것이다. 시선의 변화만 주어졌을 때보다 지적하기의 행동이 증가되면 유아의 반응 비율은 59%에서 96%로 증가되었다 (Butterworth, 1991).

상호주의하기에서 어떤 것을 시도하는 능력은 반응하는 능력보다 이후에 발달한다. Butterworth와 Adamson-Macedo(1991)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인형과 자동차를 사용한 연구에서 13.5개월에 영아가 의도적으로 지적하기를 사용하는 행동이 명확히 나타나기 시작하며, 15개월에는 자신이 지적한 대상을 어머니가 바라보는지 확인하는 행동이 나타남을 보여주었다(김지연, 2002 재인용). Baron-Cohen(1989) 또한 14개월 된 영아가 지적하기 행동을 나타내기 시작 하며, 18-24개월일 때 자발적인 지적하기 행동을 가장 많이 보인다고 제시 하였다. Tomasello(1995) 와 Pierce(1997)도 영아가 12-14개월이 되었을 때 다양한 환경에서 자발적으로 시선 교환을 시도하며, 대상에 대한 성인의 주의에 따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물체에 대한 요구가 아닌 성인의 행동과 주의를 적극적으로 조작하려는 시도로서 서술적 지적하기(protodeclarative pointing) 행동이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이는 타인과 주의를 공유하려는 사회적인 동기를 가진 행동으로서 12-14개월의 유아가 타인을 자신과 다른 주의와 의도를 가진 존재로서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점을 뒷받침해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영아기의 상호주의하기 행동의 발달 과정은 영아는 어머니가 사랑을 표현해 줌으로써 보상을 받고, 신뢰감을 발달시키게 되며, 어머니는 영아가 즐거워하는 표현을 보고 보상을 받음으로 영아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바로 사회적 참조의 지시자로서 생후 1년간 상호주의하기를 규칙화하는 어머니에 의해 가능한(Emde, 1980)것으로, 영아나 어머니의 일방적인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영아와 어머니의 양방향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며, 상호호혜적인 의사소통의 결과인 것이다.

2. 놀이감 중심의 영아와 어머니 상호주의하기

영아의 생활 전체가 밀접하게 연결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끊임없이 관찰될 수 있으나, 특히 자유놀이상황에서의 상호작용은 영아의 요구와 관심, 어머니의 주의를 끌고자 하는 주도적 행동과 영아의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좀 더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은 일방적인 상호작용이 아니라 양 방향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의미를 갖는다. 이것이 영아와 어머니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어머니의 일방적인 지시, 설명, 직접적인 시범 등은 영아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주도 행동과 발달을 기대하기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아와 어머니 상호작용에서의 주체는 영아가 되어야 하며(이영자, 1994),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상호주의하기는 영아의 주도적 행동을 끌어낼 수 있는 어머니의 적절한 반응과 개입을 통한 피드백 제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영아와 어머니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상호주의하기 행동은 영아가 어머니의 주위에 따르는 능력과 어머니에게 상호 주의하기 행동을 시도하는 행동으로 나누어진다(Charman, 1997). 그러나 영아가 이러한 행동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지적 행동에는 차이가 있다(Landry, Garner, Pirie, & Swank, 1994). 그러한 차이는 반응성(responsiveness)과 주도성(initiative)으로 설

명될 수 있다. 즉, 상대방의 어떤 요구에 반응하는 행동은 상호작용의 맥락 속에서 이미 상대방이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틀을 제공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운 과제인 반면,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는 것을 시도하는 주도적 행동은 영아 스스로 사회적 목표를 형성하고, 자신과 상호작용하는 파트너의 지시 없이도 자신의 흥미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반응을 하는 것보다 어려운 과제가 된다 (Landry, Smith, & Swank, 1997). 이러한 반응성과 주도성은 영아-양육자 간의 단순한 상호작용을 넘어 이후의 사회적 교환을 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기술로 영아 초기부터 이미 개인차가 나타난다고 한다.

영아와 어머니 간 상호주의하기 행동에서 제3의 대상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삼자적인 상호작용에서의 반응성과 주도성이 더 성숙된 사회인지적 능력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삼자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상대방이 제3의 특정대상과 심리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그것에 대한 내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영아에게 있어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고, 일상생활이 곧 놀이인 영아들에게 놀이감은 제3의 대상으로 삼자적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인지적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좋은 매개체이다. 놀이감을 매개로 한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주의하기 행동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보다 양자의 반응성과 주도성을 관찰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상황이다(Newland, Roggman, & Boyce, 2001). 예를 들면, 놀이감을 가지고 노는 놀이상황에서 어머니는 특정 놀이감으로 영아의 주의를 전환하기 위한 주도행동을 하게 되며, 이에 영아는 어머니의 주의 단서에 따라 자신도 어머니가 현재 주의를 두고 있는 놀이감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이때 어머니는 상호주의하기의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며, 영아는 상호주의하

기의 반응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영아가 특정 놀이감으로 어머니의 주의를 전환하기 위한 주도행동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영아가 상호주의하기의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며, 어머니는 반응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즉, 놀이감이 매개가 되는 놀이상황은 영아와 어머니의 주의 초점이 상대방으로부터 놀이감으로 또는 놀이감에서 상대방으로 옮겨 갈 수 있는 삼자적 주의과정과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것이다. 초기에 영아는 놀이감을 가지고 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적극적이지 못하지만, 만2세에 접어들면서 놀이감을 가지고 하는 놀이 상호작용을 주도하기 시작하고, 파트너와 놀이행동을 협응하고 놀이감을 교환하기 시작한다(Dunham & Moore, 1995; Tomasello, 1995). 어머니 역시 영아를 놀이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책략을 사용하게 되는데, 어머니는 영아의 발달적 수준에 따라 자신의 책략사용을 변화시키게 된다(Newland, Roggman, & Boyce, 2001).

이러한 놀이감을 매개로 한 삼자적 상호작용을 주도행동과 반응행동으로 범주화하여 어머니와 영아의 행동을 살펴본 Newland, Roggman 와 Boyce(2001)의 경우 어머니의 주도행동을 소개, 단순제시, 개입, 유지, 확장 등 5가지로 범주화하고 있다. 어머니의 5가지 주도행동은 영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 것으로 소개는 영아가 다른 놀이감에 관심을 보이거나 놀이를 하고 있지 않을 때, 어머니가 영아에게 새로운 놀이감을 제시하여 주의를 전환시키는 것이다. 단순제시는 영아의 시야 앞에 단순히 놀이감을 보여주지만 하는 것이며, 개입은 어머니가 영아에게 다른 놀이감을 제시하여 영아의 관심을 돌리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유지는 제시한 놀이감의 고유한 기능과 관련된 동작이나 활동을 하는 것이고, 확장은 제시한 놀이감의 고유한 기능을 넘어서는 응용활동을 하거나 다른 놀이감을 연합한 놀이를 통해 영아의 주의를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어머니 주도행동은 영아의 주위에 따라가거나 영아의 주의를 전환시키는 책략으로 김민화 · 광금주(2004)는 이를 ‘유지’, ‘확장’, ‘비개입’

등 세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들은 영아기 초기에도 어머니의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반응성이 영아의 사회적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이는 어머니 주도행동 유형이 영아의 반응성뿐만 아니라 어머니 자신이 영아에게 나타내는 반응성 유형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인 영아-어머니간의 상호작용 연구뿐만 아니라 놀이감을 중심으로 한 상호작용 연구에서도 많은 연구자들은 상호작용을 위한 어머니의 책략사용 중 직접적인 개입과 높은 수준의 활동성 유지가 영아와 유아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Hart & Risley, 1995).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이러한 부모의 적극적인 개입이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이것은 영아의 월령에 따른 변화와도 관련된다. 즉 일반적으로 6개월 미만의 영아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어머니에게 더 의존적이며, 주도적인 행동이 적기 때문에 영아의 주의를 적극적으로 전환하는 주도성과 개입이 높은 어머니로부터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Dunham & Dunham, 1995; Findji, Pecheaux, & Ruel, 1992), 만 1세 이후의 나이든 영아는 상호작용에서 덜 의존적이고, 스스로가 주도적인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영아의 주도적 초점에 반응적인 어머니들이 더 많은 이득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Dunham & Dunham, 1992; Tomasello & Farrar, 1986).

따라서 영아기 동안 놀이감을 가지고 노는 영아와 어머니 사이에 놀이는 상호주의의 맥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발달적으로 더 복잡해지고 더 상호적이며, 더 강도가 증가한다. 동시에 놀이상황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은 더 효율적이고, 상호적이며, 언어적으로 된다(Messinger & Fogel, 1998).

3. 관련연구

영아기 삼자적 상호작용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잘 알려진 상호주의하기에 관한 연구들이 최근 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상호주의하기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장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로 정상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최근 들어 시작되고 있다.

장애영아를 대상을 한 상호주의하기 연구는 자폐아(곽승철·이영옥, 2003; 김지연, 2002; 송은정, 2000; 정석진, 2000; 주세진, 2005; 차숙영, 2003), 애착장애아(신현정, 1997; 정석진, 2000), 발달장애아(김영미, 2003) 등이 있고, 정상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6,7개월 영아의 주도성과 반응성(김민화·곽금주, 2004), 12개월 영아의 사회적 의사소통능력에 관한 연구(곽금주·김민화·한은주, 2004) 등이 있다. 외국의 경우 정상 영아에 관한 상호주의하기 연구 중에서 놀이감을 매개로 한 삼자적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Csibra, Gergely, Biro, Koos & Brockbank, 1999; Newland, Roggman, & Boyce, 2001; Landry, Smith & Swank, 1997; Rochat & Morgan, 1998; Rochat, Morgan, & Carpenter, 1997; Tomasello, 1995; Woodward, 1998, 1999).

영아의 어머니, 놀이감의 삼자적 상호주의하기에 관한 연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Saxon, Clombo, Robinson 과 Frick(2000)는 2개월 된 영아와 그들의 어머니 23쌍을 자유놀이상황에서 관찰하여 6-8개월, 40개월 영아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발달적 패턴에 대해 종단 연구하였다. 6개월 미만의 영아들은 어머니에게 더 의존적이고 주도적 행동을 적게 하여 어머니의 높은 주도성과 개입이 영아에게 유익하지만, 만1세 이후 영아들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서 덜 의존적이고, 스스로 주도하는 행동이 많아지므로 적극적인 어머니의 주도 보다는 영아의 주도적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적극적이고 적

절한 반응이 영아에게 더 많은 이득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Newland, Roggman 과 Boyce(2001)는 11-14개월 된 영아 70명과 14-17개월 된 영아 51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자유놀이 상황에서 영아의 언어와 놀이 변화 및 영아를 놀이에 참여시키기 위해 어머니가 사용하는 책략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11-14개월 집단에서 영아의 주도적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행동이 높아졌다. 그리고 11개월에서 14개월이 되는 월령의 영아에게는 어머니가 주의환기를 위한 책략으로 놀이감을 사용하였으나, 17개월 영아에게는 어머니의 언어적인 주의단서를 사용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영아에게 보여주었던 어머니의 주도적 행동이 점점 적극적인 반응행동으로 옮겨갔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영아의 주도 행동을 높이는 어머니의 책략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Dunham 과 Moore(1995)는 초기 영아는 발달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있으므로 놀이감을 매개로 한 어머니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주의단서에 의존하는 방관자의 역할이 높다. 그러나 2세가 접어들면 놀이감을 가지고 하는 자유놀이상황에서 놀이상황을 주도하기 시작하고, 파트너와 놀이행동을 협응하고, 놀이감을 교환하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김민화 · 광금주(2004)는 6,7개월 된 영아와 그들의 어머니 91쌍을 자유놀이상황에서 영아-어머니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여기서 놀이감을 매개로 삼자적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주도성과 반응성은 어머니의 일방적인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즉, 6,7개월 영아와 어머니의 놀이상황에서 주도적인 개입이 많은 어머니들이 개입이 적은 어머니들보다 영아의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별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영아의 주도적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적극적인 반응이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영아 반응을 끌어낼 수 있었다. 또한 개입과

적극적인 주의전환책략을 많이 사용한 어머니들이 오히려 영아의 주도적 행동에는 무관심하기 쉬우며 어머니 자신의 의도대로 영아의 주의를 이끌어가고자 하였다. 결국 영아기 후반뿐만 아니라 영아기 초기부터 어머니의 주도적 개입보다는 영아의 행동에 적절히 반응하는 어머니의 반응성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것이다.

곽금주 · 김민화 · 한은주(2004)는 영아와 어머니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종단적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된 영아-어머니 상호작용 방식과 영아의 의사소통에 관해 연구하였다. 6,7개월에 장난감 중심 자유놀이에 참여한 97명과 11, 12개월에 사회적 의사소통능력 실험에 모두 참여한 62명을 대상으로 영아와 어머니의 초기 상호작용의 경험과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관찰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주도적 개입이 많을 경우 영아의 주도적 행동이 적어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주도적 행동을 많이 한 영아의 어머니일수록 어머니의 개입도 많았고, 주의환기의 빈도도 높았다. 또한 6,7개월에 주도성이 높았던 집단의 영아들 보다는 반응성이 높았던 집단의 영아들이 12개월에 높은 사회적 의사소통능력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는 영아가 미성숙한 의사소통능력을 보이기 시기이지만 높은 수준의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은 주도성뿐만 아니라 반응성도 높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놀이감을 매개로 한 삼자적 상호주의하기에서 영아의 주도적 행동을 끌어낼 수 있는 어머니의 적절한 반응과 개입을 통한 피드백 제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즉, 영아의 사회인지적 능력 발달은 어머니의 적극적인 개입과 주의전환 책략 보다는 영아의 주도적 행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어머니들이 자신의 주도행동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영아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12~18개월(평균15.8개월) 영아 60명(남:28명, 여:32명)과 그들의 어머니 총 60쌍이다.

연구대상은 눈덩이 표집을 통해 전화로 연구 협조를 의뢰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서울과 일산, 수원 거주 영아와 어머니 63쌍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15분 동안의 자유놀이를 성공적으로 마치지 못하였거나 비디오 녹화에 문제가 있는 3쌍을 제외한 총 60쌍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대상 연령의 선정 기준은 상호주의하기 기능을 담당하는 주의공유기제가 9-18개월에 나타나며, 12-14개월경에 자발적인 시선교환 시도, 13.5개월경엔 의도적인 지적하기, 15개월경에는 자신이 지적한 대상을 어머니가 바라보는지 확인하는 행동이 나타난다는 선행연구(Baron-Cohen, 1989; Tomasello, 1995) 결과를 종합하여 12개월-18개월 영아와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정하였다.

계층에 따른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부모의 학력이 고졸이상이고, 사회경제적 수준이 중류층에 속하는 가정의 영아와 그들의 어머니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어머니의 연령은 30대가 73.4%이고, 교육수준은 전문대졸 이상이 93.4%이며, 가정의 월수입은 250만원 이상이 전체 86.7%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영아와 어머니 간 상호주의 행동에서 나타난 주도행동과 반응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Newland, Roggman 과 Boyce(2001)의 측정도구를 일부 수정 사용한 김민화·곽금주(2004)의 영아와 어머니 사회적 상호작용 측정도구를 수정·사용하였다. 측정도구의 범주는 어머니 주도행동, 영아의 반응행동, 영아 주도행동의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되어있고, 각각의 범주에 대한 하위행동들로 구성되었다. 측정 도구의 범주구성과 하위행동에 대한 설명은 <표2>에 기술하였다.

영아와 어머니 상호주의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자료는 김민화·곽금주(2004)연구에서 사용된 놀이감 목록을 근거로 본 연구대상의 연령을 고려하여 다른 놀이감으로 대체하거나 첨가하여 제시하였다. 제시한 놀이감의 목록은 <표1>과 같다. <표1>의 놀이감은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 바구니에 제시하였으며 놀이감의 종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겹치지 않게 담아 제공하였다. 측정은 영아와 어머니 한 쌍을 연구자와 보조 연구자1인이 개별적으로 관찰하였으며, 한 쌍 당 관찰시간은 15분이 소요 되었다.

<표1> 놀이감 목록

놀이감 종류	수량(개)	놀이감 종류	수량(개)
곰인형	1	백백이 오리	1
손수건	1	공	1
복합기능 자동차	1	그림책(씩씩씩)	1
전화기	1	블록	빨강, 노랑, 초록, 파랑 각각 2개씩

<표2> 측정도구의 범주 및 행동에 대한 정의

범주	행동	행동에 대한 정의
어머니 주도행동: 어머니가 영아 에게 놀이감을 제시하는 행 동들	소개	영아가 다른 놀이감에 관심을 보이거나 놀이를 하고 있지 않을 때, 어머니가 영아에게 새로운 놀이감을 제시하는 행동.
	소극적 개입	영아가 이미 다른 놀이감에 관심을 보이거나 놀이를 하고 있는 도중, 어머니가 영아에게 다른 놀이감을 제시하여 영아의 관심을 돌리고자 하는 행동
	단순제시	영아 시야 앞에 단순히 놀이감을 보여주지만 하는 행동
	유지	제시한 놀이감의 고유한 기능과 관련된 동작이나 활동을 하는 행동
	확장	제시한 놀이감의 고유한 기능을 넘어선 응용활동을 하거나 다른 놀이감을 연합한 놀이 행동.
영아 반응행동: 어머니가 제 시하는 놀이 감에 대한 영 아의 반응 행 동	무관심	어머니가 제시한 놀이감에 관심을 두지 않는 행동.
	단순한 인식	어머니가 제시한 놀이감을 잠깐 바라보다 다시 이전의 놀이행동으로 돌아가는 행동.
	소극적인 수용	손을 내밀어 어머니가 제시한 놀이감을 받으려고 하거나 받아서 잡는 행동. 영아가 놀이감을 받기는 하지만 이후 그 놀이감을 가지고 놀이 활동에 들어가지 않는 수준의 행동.
	탐색	어머니가 제시한 놀이감을 받아들이고 탐색하거나 혼자서 놀이 활동을 하는 행동.
	협응적인 수용	어머니가 제시한 놀이감으로 놀이 활동을 하는데, 어머니의 참여를 요구하는 듯 음성적 반응을 하거나 혹은 어머니와 눈 맞춤을 하거나 놀이감과 어머니를 번갈아 보는 행동.
영아 주도행동: 영아가 어머 니에게 놀이 감에 대한 관 심을 나타내 는 행동들	단순한 시선주기	새로운 놀이감에 잠시 눈길을 주거나 쳐다보는 정도의 관심 행동.
	소극적인 관심표현	새로운 놀이감을 잡으려고 시도하거나 그 놀이감을 잡는 행동. 영아가 어머니에게 호소하듯 놀이감과 어머니를 번갈아 보는 행동이 포함.
	적극적인 관심표현	새로운 놀이감을 어머니의 눈앞에 보여주거나 어머니에게 주는 행동.

3. 연구절차

1) 예비관찰

영아와 어머니 상호주의하기를 측정하고자 하는 측정도구의 적절성(분석 기준, 관찰시간, 절차상 주의점 등)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 대상이 아닌 12개월 영아-어머니 2쌍(남:1명, 여:1명)과 18개월 어머니 2쌍(남:1명, 여:1명)을 대상으로 영아의 건강상태, 가정 상황을 고려하여 2004년 12월 6일~8일에 예비 관찰을 실시하였다. 예비 관찰 결과, 관찰시간은 15분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 주도행동 중에서 ‘개입’행동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영아의 놀이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정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관찰시간을 20분에서 15분으로 조정하였고, 어머니 주도행동 중에서 ‘개입’행동을 ‘소극적 개입’ 행동으로 분석기준을 조정하였다.

2) 관찰자 훈련

예비 관찰을 실시하기 전에 본 연구자 이외에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교사 경력이 2년 이상인 대학원생 1명과 2004년 12월 6-8일에 관찰자 훈련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측정절차 및 측정 도구에 대한 훈련을 하여 본 관찰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예비 관찰 후 녹화된 비디오 자료 코딩에 관해 의견 교환과 상충된 부분에 대한 재분석을 통해 관찰자간 신뢰도를 구하였다. 비디오 코딩을 통해 얻은 모든 측정치에 대한 관찰자간 신뢰도는 .86을 얻어 측정된 자료의 신뢰성을 알 수 있었다.

3) 본 관찰

본 관찰은 2005년 1월 19일부터 2005년 3월 28일까지 본 연구자가 각 가정에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관찰하였다. 연구대상 어머니와 영아의 건강상태, 가정의 상황을 고려한 방문일자와 방문시간을 전화통화를 통해 결정하였다. 가정 방문 시 연구목적과 놀이감을 매개로 한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에 관해 설명하고, ‘영아와 어머니 상호작용에 대한 유의사항’을 기술한 설명문을 제시하여 상호작용 방법과 시간, 협조 사항 등에 관해 이해를 도왔다. 이는 <부록1>에 제시하였다.

어머니가 제시한 설명문 내용을 숙지하는 동안 관찰자는 영아와의 레포형성을 위해 연구에 사용되지 않는 놀이감을 가지고 놀이를 하였고, 영아가 캠코더를 의식하는 경우 캠코더의 덮개를 벗겨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한 후 관찰을 실시하였다.

본 관찰에 사용되는 놀이감은 연구자가 제공한 놀이감으로 제한하였고, 캠코더는 가리개를 씌워 영아가 의식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영아가 다른 것에 시선이 빠가지 않도록 주변을 정리하여 다른 놀이감이 없는 장소에서 영아와 어머니가 마주보고 가운데 제시된 놀이감 상자를 놓고 실시하였다. 어머니에게 비디오 화면에서 벗어나는 위치로 이동하지 않을 것을 알리고 영아와 어머니가 놀이감 상자의 뚜껑을 여는 것과 동시에 비디오 녹화를 시작하여 놀이시간이 15분이 경과되면 놀이의 중지를 알렸다.

4) 측정 및 기록방법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주의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행동범주는 Newland, Roggman 과 Boyce(2001)의 연구에서 사용하고, 김민화·곽금주(2004)에서 일부 수정한 방법을 기초로 하여 수정·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행동범주와 행동 코딩의 설명은 <표2>에 제시되었다.

비디오 촬영된 15분간의 자유놀이에서 보여준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을 본 연구자와 1명의 보조 연구자에 의해 비디오 코딩하였다. 15분간의 자유놀이는 앞 뒤에서 2분 30초씩을 제외하고, 가운데 10분을 15초 간격으로 나누어 <표2>의 지침에 따라 행동발생 빈도를 시간표집 하였다. 따라서 각 개별 영아가 각 측정변인에서 얻을 수 있는 점수는 최소 0점에서 최대 40점까지이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어머니 주도행동으로 집단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하였다. 어머니 주도행동 유형별 영아와 어머니의 주도행동과 반응행동을 분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고, 집단 간 차이를 보기 위해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상호주의하기에서 나타난 영아와 어머니 행동에 대해 비디오 녹화 내용을 전사한 후 영아와 어머니 놀이행동을 하위범주별로 나누어 사례 분석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본 연구는 상호주의하기에서 어머니 주도행동 유형에 따른 영아의 반응행동과 주도행동을 분석하고, 영아와 어머니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영아와 어머니의 놀이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각각의 연구 결과를 연구 문제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상호주의하기에서 어머니의 주도행동 유형 분석

어머니 주도행동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한 분석 결과, 소개행동과 단순제시행동의 빈도가 높지 않아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으므로 소개와 단순제시 행동을 제외한 소극적 개입, 유지, 확장의 세 가지 행동 점수를 가지고 군집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어머니 주도행동이 세 집단으로 유의하게 분류 되었고, 이에 대한 군집분석 결과는 <표3>과 같다.

<표3> 어머니 주도행동에 대한 군집분석 결과

어머니 주도행동	집 단			F
	1	2	3	
소극적 개입	.89	4.32	2.16	52.79*
유지	.79	.59	4.05	64.86*
확장	1.26	.59	1.79	6.52*
사례수	19	22	19	

*P<.05

분석 결과, 세 집단의 어머니 주도행동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집단 1은 제시한 놀이감의 고유한 기능을 넘어선 응용활동을 하거나 다른 놀이감을 연합한 놀이를 많이 하는 어머니 집단으로 ‘확장’ 집단이라고 명명하였고, 집단 2는 영아가 이미 다른 놀이감에 관심을 보이거나 놀이를 하고 있는 도중, 영아에게 다른 놀이감을 제시하여 영아의 관심을 돌리고자 하는 행동을 많이 하는 어머니 집단으로 ‘소극적 개입’ 집단 이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집단 3은 제시한 놀이감의 고유한 기능과 관련된 동작이나 활동을 많이 하는 어머니 집단으로 ‘유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2. 어머니 주도행동 유형별 영아의 반응행동

어머니 주도행동 유형별 영아의 반응행동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영아의 반응행동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분산분석 한 결과는 다음 표4와 같다.

<표4> 영아 반응행동의 평균, 표준편차 및 분산분석 결과

영아 반응행동	어머니 집단 유형						F
	확장(N=19)		소극적 개입 (N=22)		유지(N=19)		
	M	SD	M	SD	M	SD	
무관심	.68	.75	.95	.65	1.72	1.54	4.22*
단순 인식	1.11	1.15	1.82	1.18	1.95	1.72	2.13
소극적 수용	.95	1.22	1.27	1.24	1.58	.84	1.50
탐색	2.16	2.91	4.32	2.66	2.26	2.54	4.24*
협응적 수용	1.68	1.83	1.86	1.17	2.75	1.46	2.85

*P<.05

표4에서 어머니 주도행동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영아의 반응행동의 평균을 살펴보면, 무관심 반응은 ‘유지’ 집단 어머니들의 영아들이 (M=1.72) 가장 많이 나타났고, ‘확장’ 집단 어머니의 영아들이(M=.68) 가장 적게 나타냈다. 또한 탐색 반응은 ‘소극적 개입’ 집단 어머니의 영아들이 (M=4.32) 가장 많이 나타냈으며, ‘유지’ 집단(M=2.26)과 ‘확장’ 집단 (M=2.16) 어머니들의 영아들은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영아 반응행동이 어머니 주도행동 유형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표4의 결과를 보면, 영아의 반응행동은 무관심 ($F=4.22$, $P<.05$)과 탐색($F=4.24$, $P<.05$) 반응행동에서 어머니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단순 인식($F=2.13$, $P<.05$)과 소극적 수용($F=1.50$, $P<.05$), 협응적 수용($F=2.85$, $P<.05$) 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영아 반응 행동의 집단 간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e' 검증을 실시한 결과, 영아의 무관심 반응은 '유지' 집단과 '확장' 집단 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5$), 영아의 탐색 반응은 '소극적 개입' 집단과 '확장' 집단 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이는 제시한 놀이감의 고유기능과 관련된 활동에 치중하는 어머니의 영아들이 제시한 놀이감에 무관심한 반응을 많이 나타냈고, 어머니가 영아의 주의를 전환시키고자 소극적 개입하는 경우 제시한 놀이감을 탐색하거나 혼자 놀이하는 영아의 탐색 반응을 더 많이 끌어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어머니 집단 유형별 영아의 주도행동

어머니 주도행동 유형별 영아의 주도행동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영아의 주도행동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분산분석 한 결과는 다음 표5와 같다.

<표5> 영아 주도행동의 평균, 표준편차 및 분산분석 결과

영아 주도행동	어머니 집단 유형						F
	확장(N=19)		소극적 개입 (N=22)		유지(N=19)		
	M	SD	M	SD	M	SD	
단순한 시선	.89	.81	1.14	1.32	1.53	1.39	1.33
소극적 관심표현	2.53	1.71	1.32	1.09	2.32	1.83	5.77*
적극적 관심표현	3.37	2.22	4.09	1.44	2.47	1.02	4.78*

*P<.05

표5에서 어머니 주도행동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영아의 주도행동 평균을 살펴보면, 소극적 관심표현은 ‘확장’ 집단 어머니들의 영아들이 (M=2.53) 가장 많이 나타냈고, ‘소극적 개입’ 집단 어머니들의 영아들이 (M=1.32) 가장 적게 나타냈다. 적극적 관심표현은 ‘소극적 개입’ 집단 어머니들의 영아들이(M=4.09) 가장 많이 나타낸 반면 ‘유지’집단 어머니들의 영아들이(M=2.47) 가장 적게 나타냈다. 그러나 전반적인 영아의 반응행동은 소극적 관심표현보다 적극적 관심표현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영아의 주도행동이 어머니 주도행동 유형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표5의 결과를 보면, 소극적 관심표현($F=5.77$, $P<.05$)과 적극적 관심표현($F=4.78$, $P<.05$) 행동은 어머니 주도행동 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단순한 시선($F=1.33$, $P<.05$)은 어머니 주도행동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영아 주도 행동의 어머니 주도행동 유형에 따른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e' 검증을 실시한 결과, 영아의 소극적 관심표현은 '확장' 집단과 '소극적 개입' 집단, '유지' 집단과 '소극적 개입'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또한 영아의 적극적 관심표현은 '소극적 개입' 집단과 '유지' 집단 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이는 영아의 주의를 확장시키는 어머니의 영아들이 제시한 놀이감에 대해 소극적인 관심을 가장 많이 표현하였고, 영아의 주의를 전환시키기 위해 소극적 개입하는 집단 어머니의 영아들이 제시한 놀이감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영아와 어머니 상호작용에서 영아의 놀이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어머니들이 영아의 적극적인 주도행동을 끌어내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상호주의하기에서 영아와 어머니의 놀이 행동 분석

놀이감을 매개로 하는 자유놀이 상황에서의 영아와 어머니 상호작용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보다 누가 놀이를 주도 하는지, 상대방의 주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관찰하여 체크리스트로 측정하는 방법은 놀이감을 매개로 한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에 영아-놀이감-어머니간의 삼자적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영아와 어머니의 행동이 어떠한지 각각 하위범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1) 영아의 놀이행동

본 연구에서는 영아가 어머니를 놀이에 어떻게 참여시키고, 어떻게 놀이감을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놀이감에 접근하기, 놀이감의 속성에 흥미보이기, 놀이감 사용에 대한 문제해결 요구하기, 놀이감을 다른 용도로 대치하기, 몸짓과 표정으로 신호보내기 등 5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1) 놀이감에 접근하기

영아들은 새로운 놀이감을 접했을 때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직접 놀이감에 접근하지 못하고, 놀이감을 쳐다보거나 살짝 만져봄으로써 놀이감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였다. 영아들은 어머니를 안전기반으로 삼아 어머니의 도움으로 놀이감을 가져오거나, 만져보기도 하고, 어머니가 놀이감을 자신에게 가져다주기를 바라기도 하였다. 때로는 어머니의 언어적 허락만으로도 새로운 놀이감에 접근을 쉽게 하기도 하였다. 이때 영아들은 자신의 요구를

손짓이나 손을 잡고 끄는 행동, 미소 등과 같이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표현하였고, 어머니들은 영아의 요구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초기 영아기는 언어적 의사표현에 제한을 가지므로 영아의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어머니의 세심한 관찰과 수용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엄마가 영아1을 살짝 놀이감 상자 앞으로 민다. 영아1은 손을 뒤로 감추고 엄마 옆에 바짝 붙는다.

엄마: (상자를 두드리며) 00야 이게 뭐야?

영아1:어~(엄마 얼굴을 쳐다본다.)

엄마: 괜찮아.. 엄마랑 열어볼까?

영아1이 놀이감 상자를 만지작거리더니 상자의 뚜껑을 연다. 놀이감 상자 안을 들여다보더니 이내 엄마를 쳐다본다.

<사례2>

영아2는 자동차를 밀면서 전화기 쪽을 쳐다보고 있다. 엄마는 영아가 쳐다보는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엄마: 오리? 짹짹!

영아2: (고개를 저으면서) 어으으~~

엄마: 전화기?

영아2는 고개를 끄덕인다.

엄마: 00야 가서 가져와. 아빠한테 전화할까?

영아2는 자동차를 옆에 놓고 전화기를 가져온다.

<사례3>

영아3은 자동차를 한번 밀고는 그만두고 다른 쪽을 쳐다보고 앉았다.

엄마: 뭐?

영아3:(놀이감 쪽을 가리키면서)어~

엄마: 곰 인형?

영아3이 고개를 끄덕인다. 엄마가 곰 인형을 영아에게 가져다준다.

<사례4>

영아4는 놀이감 상자 주위를 돌고 있다.

엄마: 00야 그거 뭐지?

영아4는 놀이감 상자를 고개를 숙여 이리 저리 살펴본다.

엄마: 열어봐

영아4는 엄마의 손을 잡아끈다. 엄마가 놀이감 상자의 뚜껑을 연다.

(2) 놀이감의 속성에 흥미보이기

영아들은 제시한 놀이감을 만져보고, 굴러보고, 두드리고, 던지고, 흔들어 보는 등 직접 조작함으로써 나타나는 기능적인 즐거움을 위해 단순한 놀이를 되풀이 한다. 즉, 자신의 행동으로 놀이감이 움직이거나 소리가 나게 되면 그 결과들을 즐기며 그 행동들을 반복하는 것이다. 때로는 어머니의 손을 놀이감에서 치워 자기 스스로 해보고자 하는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렇게 영아들은 적극적인 탐색 행동으로 놀이감에 대한 호기심의 충족과 기능의 이해 그리고 흥미를 지속시키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 자연스러운 어머니의 놀이참여를 촉진시키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엄마가 자동차 옆에 붙어 있는 버튼을 누르자 음악소리가 난다. 영아1은 자동차 굴리는 것을 멈추고 버튼을 누른다. 버튼을 누를 때 마다 음악소리가 바뀌고, 영아1은 계속해서 자동차 버튼을 누른다.

<사례2>

영아2는 엄마 손을 잡고 몇 번을 오리 누르기를 반복 하였다. 그러다 영아2 혼자 오리를 눌렀는데 소리가 나지 않자 엄마를 쳐다본다.

엄마: 소리 안나?

영아2: (엄마 손을 잡으면서) 어.

엄마는 영아2 손을 잡고 오리 가운데를 다시 누르자 ‘뽁~익’소리가 난다. 영아2는 엄마 손을 치운다. 다시 영아2가 눌러보지만 소리가 나지 않자 얼굴을 찡그리며 오리를 들어 엄마에게 준다.

(3) 놀이감 사용에 따른 문제해결 요구하기

영아는 신체적, 인지적 발달의 한계로 놀이감을 조작하다 보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영아들은 신체적 발달이 미숙하여 아직 움직이는 놀이감의 균형을 잡기엔 역부족이고, 자신의 행동이 아닌 다른 에너지의 힘으로 놀이감이 작동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므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 조작의 어려움을 나타냈다. 영아들은 이리 저리 해보지만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어머니를 참여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이때 어머니는 영아의 발달적 한계를 인식하여 직접시범을 보이거나 몸짓과 언어적 설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영아의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영아1은 곰 인형, 블록, 딸랑이를 놀이감 상자에 담고 자신의 발을 바퀴가 달린 놀이감 상자에 올려놓는다. 그러자 영아1 몸이 기우뚱 거리다 넘어졌다. 영아1은 울면서 엄마 품에 안긴다.

엄마: 똑!! 눈물 똑!! 우리 OO 빠빵 타고 싶구나..

영아1이 고개를 끄덕인다.

엄마는 영아1를 놀이감 상자에 태우고 상자를 민다.

<사례2>

영아2는 곰 인형을 안고 자동차를 집어서 버튼을 눌러보지만 소리가 나지 않는다. 영아2가 엄마 손을 끌어서 버튼을 누르지만 소리가 나지 않자 경아가 ‘어~어~’한다. 엄마가 전원스위치를 키고 버튼을 누르자 음악 소리가 나온다. 영아2가 전원스위치를 다시 눌러본다.

(4) 놀이감을 다른 용도로 대치하기

영아들은 자신이 실제 생활에서 경험한 사물과 유사한 형태의 놀이감을 보면 그 사물의 용도로 대치하여 놀이하는 행동을 보였다. 예를 들어 딸랑이나 블록은 전화기가 되기도 하고 악기가 되기도 하였고, 손수건은 포대기로 대치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놀이감이 고유한 기능 외에 다른 용도로 대치될 때 하나의 용도로만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블록의 예처럼 전화기도 되고, 입으로 부는 악기도 되는 등 여러 용도로 대치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영아들은 실제 생활에서 사용했던 도구나 경험한 상황들을 놀이 상황에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때로는 어머니의 시범으로 영아의 대치 행동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놀이감을 대치할 경우 대치한 사물에 맞는 행동이 함께 이어짐으로써 영아가 놀이감을 어떤 대상으로 대치시켰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영아1은 딸랑이를 흔들다 귀에 갖다 댄다.

영아1: 어. 어

엄마: (영아1의 행동을 보면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영아1은 딸랑이를 엄마 귀에 댄다.

<사례2>

영아2는 손수건을 엄마에게 주고 등을 돌린다. 엄마는 손수건으로 곰인형을 묶어준다.

엄마: (영아2가 엮은 곰 인형을 툭툭 치면서)자장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자장자장~

영아2가 곰 인형을 엮고 주위를 돌아다닌다.

영아2가 곰 인형을 엮은 채 블록을 집어서 입으로 가져간다.

엄마는 후하고 불고, 영아2도 ‘웅웅웅~~’소리를 낸다.

(5) 몸짓과 표정으로 신호보내기

언어 표현력이 아직 미숙한 영아들은 새로운 놀이감에 접근하기 위해서 또는 놀이감 조작에 문제가 생기거나 놀이 상대자를 원할 때 몸짓과 표정으로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였다. 예를 들어 어머니를 향해 얼굴을 찡그리고,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놀이감으로 바닥을 치는 소극적인 표현 외에도 적극적으로 어머니를 놀이감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거나 어머니의 손을 놀이감에 갖다 대는 등의 비언어적 의사표현을 하였다. 이때 적극적으로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는 영아의 행동은 어머니의 지시나 주도에 의해 영아가 따라가기 보다는 영아의 요구에 어머니들이 따라오는 행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영아의 비언어적인 의사표현은 어머니들로 하여금 영아들의 요구를 알아차릴 수 있는 민감한 능력을 요구하게 된다. 즉, 어머니는 일상생활 속에서 영아와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영아의 몸짓이나 표정, 울음, 미소, ‘어~, 우~, 응’ 과 같은 짧은 음성 등을 통해 영아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영아1은 딸랑이를 자동차에서 빼려고 잡아당기지만 딸랑이 방울이 걸려 나오지 않는다. 영아1이 엄마를 쳐다본다.

영아1: (놀이감을 가리키면서)이~이

엄마: 안 나와...

엄마가 딸랑이를 빼서 영아1에게 주고, 영아1은 다시 딸랑이를 자동차에 넣는다.

<사례2>

영아2는 놀이감 상자에서 공을 꺼내와 엄마 무릎에 놓는다.

엄마: 00야 공놀이 할까?

영아2는 고개를 끄덕인다.

<사례3>

영아3은 손수건을 엄마에게 주고 등을 돌린다.

엄마: 00야 왜?

영아3이 곰 인형을 쳐다본다.

엄마: 어부바해?

영아3이 고개를 끄덕이고 엄마는 손수건으로 곰 인형을 묶어준다.

이상과 같이 상호주의하기에서 나타난 영아의 놀이행동은 비언어적 의사사통 방식으로 어머니와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흥미와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놀이감의 선택과 놀이방식을 영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는 놀이 주체로써 어머니를 자신의 놀이 파트너로 참여시켜 적극적으로 놀이상황을 주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2) 어머니의 놀이행동

영아들은 낯선 상황이나 새로운 놀이감에 접근하기 위해 어머니를 안전기지로 삼는다. 어머니의 안전기반으로써의 역할은 알게 모르게 놀이에 참여하게 되고, 영아의 요구에 비언어적 혹은 언어적 표현을 통해 수용하게 되었다. 때로는 놀이감을 다른 용도로 대치하거나, 가작화하거나, 애정적 표현을 격려하는 등 여러 형태로 놀이에 참여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영아를 어떻게 놀이감에 접근 시키고, 영아의 가상놀이를 어떻게 격려하는지, 언어적 표현을 통해 영아의 놀이를 어떻게 촉진시키는지, 영아의 애정적 표현을 격려하는지 등의 4가지 범주로 어머니 놀이행동을 나누어 볼 수 있었다.

(1) 영아의 놀이에 참여하기

새로운 놀이감을 접하는 영아들의 기대와 두려움을 이해하는 어머니들은 영아들을 새로운 놀이감에 접근하게 하고 놀이상황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영아의 놀이에 참여하게 된다. 즉, 가상적 놀이 상황을 설정하거나 직접적인 놀이감 조작을 통해 영아의 흥미를 유발시키거나 문제 상황을 그대로 두어 영아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하는 것 등을 통해 영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때로는 영아의 놀이행동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영아의 놀이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는 어머니가 자신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아는 정서적 안정감을 갖고, 놀이에 몰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어머니의 다양한 놀이 참여는 영아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영아의 요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영아1은 놀이감 상자를 쳐다봤다가 손으로 한 번 놀이감 상자를 툭 친다. 영아1이 엄마를 쳐다본다.

엄마: (뚜껑을 툭툭 두드리면서) 뭐지? 어잉~

영아1도 엄마랑 같이 뚜껑을 다시 툭툭 두드린다.

엄마: 여보세요? 누구 있어요?

영아1도 상자에 귀를 댄다.

엄마: (상자에 귀를 대고) 어! (놀란 표정으로) 소리가 나네. 누가 있나?
OO야 들려..

영아1이 상자에 귀를 대고는 엄마를 쳐다본다.

<사례2>

영아2가 놀이감을 선택하지 못하고 놀이감 상자를 쳐다보고 있다.

엄마: (공을 집어주면서) OO야 이게 뭐야?

영아2는 엄마를 쳐다보더니 다른 곳으로 간다. 엄마는 다시 곰 인형을 집어서 영아2에게 준다.

엄마: 안아봐. 사랑해요. 뽀뽀! 뽀뽀!

영아2가 곰 인형을 바닥에 두고 놀이감 상자를 두드리며 엄마를 쳐다본다.

엄마: (파란색 블록을 들면서) 이거 줄까?

영아2는 고개를 끄덕이고 파란색 블록 두 개를 탁탁 부딪친다.

<사례3>

영아3은 세모 모양을 동그라미 구멍에 넣으려고 하지만 들어가지 않자 자동차 뒷부분 문을 열고 세모 모양 블록을 넣는다. 다시 동그라미 블록을 집어 세모 모양에 끼우려고 하지만 끼워지지 않는다. 영아3은 다시 세모 모양을 꺼내 세모 모양에 끼운다. 세모 모양이 구멍에 들어가자 엄마를 쳐다본다.

(2) 영아의 가상적 놀이 지원하기

영아들은 놀이감을 실제의 기능과 다르게 변형하여 놀기도 하고, 자신의 경험을 놀이 상황에 반영하기도 하는 등 가상적 놀이를 많이 한다. 가상적 놀이 활동은 실제 생활에서 경험한 것을 흉내 내기도 하고, ‘~인 것처럼’ 행동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상적 놀이 활동은 주변 사물과 상황에 대한 관찰과 상상적 요소의 가미, 감정 이입 등 여러 능력을 요구하게 된다. 그리고 가상적 놀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형태가 놀이감의 기능을 다른 용도로 변형하는 것으로 이러한 다른 사물로의 대치는 실제 사물과 비슷한 것으로 대치하거나 실제 사물과는 다른 모양을 실제 사물의 용도로 바꾸기도 하였다. 그러나 초기 영아기는 그러한 능력 발달이 원활하지 못하므로 어머니에 의해 주도되기도 하고, 어머니의 개입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어머니의 가상적 놀이 상황으로의 유도는 놀이감의 기능을 확대시키기도 하고 영아의 상징놀이를 자극하고 더 정교하게 하며 놀이 수준과 지속시간을 증가시키기도 하였다.

<사례1>

엄마는 손수건을 집어서 영아1에게 준다.

엄마: 인형이 추우니까 덮어줘

영아1은 손수건으로 곰 인형을 덮어준다.

엄마가 곰 인형을 ‘자장 자장’소리를 내며 토닥인다.

영아1도 곰 인형을 만진다.

<사례2>

영아2는 놀이감 상자에 타고 있고 엄마가 놀이감 상자를 민다.

엄마: 어디가세요?

영아2가 손가락으로 문 쪽을 가르킨다.

엄마: 동물원가요? 누구랑 가.. 아빠랑 갈까..

영아2: 아빠.

엄마: (놀이감 상자를 밀면서 노래를 부른다.) 빵빵~~ 붕붕자동차... 빨리 빨리 와서 OO 태우고... 동물원에 갑니다. 붕붕 자동차~~

영아2가 놀이감 상자에서 나오려고 한다.

엄마: (OO 손을 잡아주면서) 다 왔습니다. 내리세요..

(3) 언어적 표현으로 놀이 확장시키기

영아는 아직 언어적 표현에 미숙하기 때문에 몸짓이나 표정, 울음, 미소 등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요구를 나타냈다. 어머니들은 이러한 영아의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영아의 요구를 이해하게 되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직접적인 시범 외에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을 많이 나타냈다.

언어적 표현과 관련된 행동으로 어머니는 놀이 상황이나 놀이감과 관련된 노래를 많이 불렀고, 영아의 몸짓이나 표정, 울음 등이 나타내는 의미를 재확인 시키거나 의성어나 의태어를 사용하여 영아의 흥미를 유발시키거나 지속시키는 행동을 많이 나타냈다. 또한 어머니들은 영아에게 사물에 대해 질문하기, 사물을 명명하기, 비교하기 등과 같은 언어적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보여 지는 어머니의 언어적 표현의 특징은 문장의 길이가 길지 않고, 단어를 끊어서 말하거나 질문하는 표현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영아가 평소 즐겨 듣거나 부르던 노래를 놀이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어머니의 언어적 표현은 영아의 구어사용의 모델이 되기도 하고, 놀이감 조작이나 문제 해결에 대한 직접적인 시범의 보충적인 의미를 갖거나 놀이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사례1>

영아1이 엄마에게 공을 던진다.

엄마: 그렇지.. 자~ 받아

엄마가 공을 영아1 쪽으로 굴리고 영아1은 다시 엄마 쪽으로 공을 굴린다.

엄마: 떼굴떼굴 굴려봐 떼굴떼굴 굴러가네 떼~에~굴~

<사례2>

영아2가 오리를 태우고 자동차를 민다. 엄마는 영아2가 자동차를 미는 것을 쳐다보면서 노래를 부른다.

엄마: 오리를 태운 붕붕 자동차~~빨간불에서 멈췄습니다. 우리 아기 OO 이 놀러가려고 빨리빨리 달려오세요. 붕붕붕~~ 붕붕 자동차

영아2: 붕붕 ...자돈차...붕붕..으~으

<사례3>

엄마는 영아1를 무릎에 앉히면서 그림책을 펼친다.

엄마: (그림책을 펼치면서) 애는 누구야?

영아1: 검.

엄마: 그래 곱. 곱이야..

영아1이 곱 인형을 안는다.

엄마: 딱딱해? 부드러워?

영아1이 곱 인형을 두드린다.

엄마: 부드러워요? 안아줄까?

(4) 영아의 애정적 표현 증가시키기

영아들은 놀이감 탐색 과정에서 놀이감 조작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다른 놀이감과 연합하여 활용할 때 또는 자신의 의도대로 되지 않은 경우 놀이감을

던지거나 다른 놀이감을 치는 등 거친 행동들을 보였다. 이때 어머니들은 ‘안돼’, ‘나빠’, ‘하지마’ 등 부정적인 언어 표현으로 제재를 하기도 하고 영아의 손에서 놀이감을 빼거나 다른 놀이감을 제시하여 영아의 관심을 돌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어머니 대부분은 부정적 언어표현 보다는 가작화를 통해 감정이입하게 하는 간접적인 설명으로 영아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 의미뿐 아니라 놀이의 맥을 끊지 않고 자연스럽게 영아를 놀이에 참여시켰다. 이때 어머니의 행동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영아들에게 놀이감에 대한 애정적 표현을 격려하는 행동들이다. 즉, ‘안아줘’, ‘뽀뽀’, ‘만져줘’, ‘좋아한대?’, ‘같이 놀자해’, ‘사랑해요’ 등의 애정적 표현을 어머니 스스로 많이 사용하여 영아의 애정적 표현의 모델이 되어주기도 하고, 이러한 표현을 하도록 격려하여 놀이에 몰입하는 가운데 정서적 안정감을 갖도록 유도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영아1이 자동차를 발로 밀어 자동차가 ‘깡’소리를 내며 벽에 부딪친다.

엄마: 어! 깡하네... 자동차 아야~~

영아1:(손가락으로 자동차를 가리키며) 어.. 어..

엄마:(자동차를 만지면서) 자동차 아야 해... 호~~호~~

영아1이 엄마를 보고 있다 자동차에 ‘호~’하며 입김을 분다.

<사례2>

엄마는 아기 오리를 가지고 노는 영아2 쪽으로 엄마 오리를 민다.

엄마:(아기 오리를 만지면서) 여기 있어구나~~우리 아기

영아2가 엄마 오리를 집어서 아기 오리 옆에 놓는다.

엄마: (엄마 오리와 아기 오리를 마주 치면서) 사랑해요.

영아2: (웃으면서) 으~으~

엄마: 아기 오리 사랑한테...

이상과 같이 어머니는 자발적 놀이 참여와 피드백을 통해 영아의 상징적 표상 기회 제공, 사물에 대한 가작화 격려, 가상놀이의 모델이 되는 등 비계 설정을 통해 영아의 놀이를 확장시키는 적극적인 놀이파트너로써 영아의 놀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발달적 한계를 갖는 영아들은 어머니의 개입과 주도에 의해 자극 받고, 자신의 요구에 대한 어머니의 적절한 반응으로 강화되었다. 또한 어머니는 영아의 발달적 수준에 따라 같은 수준 혹은 더 높은 수준의 놀이로 반응해 줌으로써 놀이를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상호주의하기에서 어머니 주도행동 유형에 따른 영아의 반응행동과 주도행동을 분석하고, 영아와 어머니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영아와 어머니의 놀이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연구문제 중심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상호주의하기에서 영아의 주의를 전환시키고자 하는 어머니의 주도행동은 ‘소극적 개입’, ‘유지’, ‘확장’ 등의 세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세 집단으로 분류된 어머니들의 주도행동 특징은 ‘소극적 개입’ 집단의 어머니는 영아가 이미 다른 놀이감에 관심을 보이거나 놀이를 하고 있는 도중, 영아에게 다른 놀이감을 제시하여 영아의 관심을 돌리고자 하는 행동이 많이 하였다. 또한 ‘유지’ 집단의 어머니는 제시한 놀이감의 고유한 기능과 관련된 동작이나 활동을 많이 하였다. ‘확장’ 집단 어머니의 경우 제시한 놀이감의 고유한 기능을 넘어선 응용활동을 하거나 다른 놀이감을 연합한 놀이를 많이 하였다.

이는 김민화·곽금주(2004)의 연구에서 ‘유지’, ‘확장’, ‘비 개입’ 등의 세 집단으로 분류된 것과는 다른 유형을 보이는 것이다. 특히 ‘비 개입’ 집단은 개입이 많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 전략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적극적인 확장 전략은 사용하지 않는 어머니 집단으로 ‘소극적 개입’ 집단이 유지와 확장 전략이 많지 않고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많은 어머니 집단이라는 것과

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소극적 개입’과 ‘비개입’ 집단은 개입의 사용이 많고 적음 외에도 유지와 확장 책략의 사용의 정도에 따라 다른 특징을 보이는 집단인 것이다.

둘째, 어머니 주도행동 유형별 영아의 반응행동은 무관심, 탐색 반응에 있어서 어머니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무관심 반응은 ‘유지’집단 어머니의 영아들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확장’ 집단 어머니들의 영아들이 가장 적게 나타내었다. 또한 영아의 탐색 반응은 ‘소극적 개입’ 집단 어머니의 영아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시한 놀이감의 고유기능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는 유지 집단 어머니들의 주도행동이 영아의 반응을 끌어내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영아의 주의를 전환시키기 위해 개입하는 어머니의 주도행동은 영아의 탐색 반응을 끌어내는데 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린 월령의 영아들은 어머니의 주도과 개입이 영아의 반응을 이끌어내기에 더 효과적이지만, 영아의 월령이 증가하면서 어머니의 주도과 개입은 감소하고, 영아의 주위에 반응적인 어머니들이 영아의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Dunham & Dunham, 1992, 1995; Tomasello & Farrar, 1986)결과와는 부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영아의 주의를 유지시키는 집단의 어머니들이 무관심을 가장 많이 나타냈고, 확장시키는 어머니의 영아들이 무관심 반응을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냈으며, 협응적 수용과 같은 영아의 적극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는 것에는 어머니 집단 간 근소한 차이가 있었다는 김민화와 곽금주(2004)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록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기는 하지만, 12-18개월 영아를 대

상으로 한 본 연구와 6,7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영아의 율령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연구결과의 일치는 어머니의 주도 행동이 영아의 반응행동을 이끌어내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선행연구(Dunham & Dunham, 1992, 1995; Tomasello & Farrar, 1986; Newland, Roggman & Boyce, 2001; Saxon, Clombo, Robinson, & Frick, 2000)에서 영아의 율령에 따른 어머니의 주의 책략의 변화를 제안한 바와 같이 12-18개월에서도 영아의 발달적 수준을 고려한 어머니 주도행동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셋째, 어머니 주도행동 유형별 영아의 주도행동은 어머니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 집단 간 영아의 주도행동에서 소극적 관심표현과 적극적 관심표현 행동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인 관심을 표현하는 영아의 주도행동은 ‘확장’ 집단 어머니의 영아들이 ‘소극적 개입’ 집단 어머니의 영아들보다 많이 나타났고, 적극적 관심을 표현하는 영아의 주도행동은 ‘소극적 개입’ 집단 어머니의 영아들에게 많이 나타났으나, ‘유지’ 어머니 집단의 영아들과는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가 개입하는 집단의 영아들이 적극적 관심을 다른 집단에 비해 많이 보였다는 것은 어머니가 영아의 주의를 전환시키기 위해 개입하는 것이 영아의 적극적인 주도행동을 높일 것이라는 Hart 와 Risley(1995)의 견해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오히려 확장시키는 어머니들의 영아들이 소극적인 관심을 더 많이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 집단 어머니의 영아들이 대체적으로 소극적인 관심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많이 표현하는 것을 볼 때 12~18개월 영아들은 보다 높은 수준의 주도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어린 율령의 영아들은 어머니에게 의존적이며, 스스

로 주도성을 발휘하는 정도가 낮은 반면, 만 1세 이후가 되면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것이 감소하고 스스로 주도성을 발휘하는 정도가 높아졌음을 강조하는 선행연구들 (Dunham & Dunham, 1992, 1995; Pedheaux, Fundji, & Ruel, 1992; Saxon, Clombo, Robinson, & Frick, 200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상대방이 주도한 주의 전환에 따라가는 반응성보다 상대방의 주의 상태를 전환시키는 주도성이 더 높은 수준의 사회인지적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Barresi & Moore, 1996; Moore, 1996; Moore & Corkum, 1994; Tomasello, 1995, 1999; Wellman, 1990, 1993). 그런데, 김민화와 곽금주(2004)는 연구에서 6,7개월 영아들은 상대방의 주의를 전환하는데 필요한 사회인지적 능력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본 연구 결과에서 12~18개월 영아들이 적극적인 주도행동을 많이 하였다는 것은 6,7개월 영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회인지적 능력이 발달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12~18개월 영아가 선행연구의 6,7개월 영아들에 비해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것이 감소하고,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주의를 전환시키는 능력이 발달하는 것은 영아기 사회인지적 상호작용의 발달적 과정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넷째, 놀이감을 매개로 한 영아와 어머니 상호주의하기에 대해 양적 분석한 결과 어머니 주도행동 유형에 따른 영아의 반응행동은 어머니의 주도행동에 의해 크게 영향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아의 주도행동은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많이 표현하는 행동을 보임으로 영아가 어머니의 적극적인 주도에 따라가기보다는 놀이를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적 분석에서는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영아와 어머니 행동

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다양한 맥락 내에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놀이감을 매개로 한 영아와 어머니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영아와 어머니 놀이 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영아의 놀이행동을 보면, 어머니를 안전기지로 삼아 새로운 놀이감에 접근을 시도하거나 놀이감의 속성을 알기 위해 만지거나 시험해보는 등 활발한 탐색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놀이감을 다른 용도로 대치하거나 놀이감 사용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머니의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를 몸짓이나 표정 등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나타냈다. 또한 어머니의 놀이행동을 보면, 영아의 비언어적 행동을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반응하여 놀이감에 대한 흥미를 지속시키고, 놀이감을 다른 용도로 대치하거나, 가작화하여 놀이를 확장시키고, 애정적 표현을 격려하는 등 여러 형태로 영아의 놀이에 참여 하였다.

영아가 낯선 환경을 접하는 것은 일상생활 중의 한 부분이고,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환경에 대한 탐색과 놀이가 시작된다(우현경, 1998; 류경, 2000). 그런데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 발달적 한계가 있는 영아에게 낯선 환경의 적응은 어머니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특히, 낯선 환경이 사물일 경우 영아는 ‘사회적 참조’ 행동을 많이 보이는데, 평소 자신에게 대상에 대한 정보를 많이 주는 성인의 얼굴을 살핀다는 것이다(Judy Garber, & Kenneth A. Dodge, 1991). 본 연구 대상 영아들은 어머니라는 안전기반을 중심으로 낯선 환경 중 하나인 새로운 놀이감에 접근하거나 탐색 할 때 어머니를 쳐다보거나 웃는 등 ‘사회적 참조’ 행동을 많이 보였고, 이에 대한 어머니의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을 근거로 놀이감에 대한 흥미를 지속시키고 놀이에 몰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놀이감은 영아의 놀이유형을 결정하기도 하고, 놀이를 충족시키며, 놀이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유은영, 2000)을 하게 되고,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은 영아의 놀이를 좀 더 확장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김금주, 2000; 성지현,

2000; 이미란, 1999; 이수연, 2001).

지성애·김영주·엄정례·조경서(1999)는 12-24개월 영아들이 공을 컵에 담고, 쟁반에 그릇을 올려놓고, 블록으로 쌓기를 하는 등 한 번에 단 한 가지 놀이감을 가지고 노는 행동은 감소하고 놀이감을 결합시키는 행동이 늘어난다고 하였다. 이는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놀이감을 가지고 있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연결하여 놀이하는 ‘관계적 놀이’(성지현, 2000)와 유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 12-18개월 영아들이 블록 두 개를 마주치며 악기놀이를 하거나, 자동차 위에 곰 인형을 올려놓고 밀거나, 서로 다른 놀이감을 길게 늘어놓는 등의 놀이행동을 보이는 것 또한 월령에 따른 놀이행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관계적 놀이’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2-24개월 영아들은 놀이감을 각각의 특징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며, 사물을 다른 사물로 대치하는 사물의 표상적 이용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본 연구 대상인 12-18개월 영아들도 딸랑이나 블록을 전화기나 악기로, 손수건을 이불이나 포대기로 사용하는 등 다른 사물로 대치하는 행동을 보이는 사물의 표상적 이용을 많이 보였다는 것 또한 비슷한 월령의 놀이행동과 근접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영아의 놀이는 어머니의 자극과 정적 상관이 있으며 어머니의 개입에 의해서 강화되는 것이며(노희연, 2002), 영아와 어머니가 상호작용할 때 같은 사물에 대해 관심과 경험을 공유하게 되면 상징적 표상의 기회도 늘어난다고 하였다(Nelson, 1973). 즉, 어머니가 사물을 명명하거나 상징놀이를 보여줄 때 영아는 그 사물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 대상 어머니들이 영아의 주의를 전환시키거나 유지, 확장시키기 위해 전반적으로 사물에 대한 명명이나 비교, 질문하기, 노래 부르기 등의 언어적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사물의 대치나 가상 놀이의 모델이 되어주는 것과 관련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영아의 주의를 확장시키는 어머니들이 대체적으로 새로운 놀이감을 제시하거나 영아의 주의를 전환

시킬 때 사물의 대치나 가상적 놀이로 놀이를 확장시키는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어떻게 놀이에 개입하고, 확장시키는지에 따라 영아의 놀이 형태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영아들은 이러한 어머니의 언어적 표현을 통해 놀이감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키고, 가상놀이에 몰입하게 되었다. 더불어 이러한 놀이 상황은 영아의 놀이시간을 좀 더 지속시켰고, 놀이 내용도 좀 더 복잡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놀이감이 아무리 많아도 혼자 노는 영아보다 어머니와 상호작용하면서 놀이를 하는 경우 더 복잡하고 지속시간도 길어진다는(지성애·김영주·엄정례·조경서, 1999)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어머니가 시범을 보이거나 함께 상호작용할 때 영아의 상징놀이 빈도가 증가하고(임혜영, 1999; 문현주, 1996), 어머니가 개입할 때 놀이 지속시간이 길어진다(이미란, 1999)는 결과와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영아의 놀이는 어머니의 개입에 의해서 자극 받고, 강화되는 것으로 어머니는 영아의 발달적 수준에 따라 같은 수준 혹은 더 높은 수준의 놀이로 반응해 줌으로써 놀이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머니는 영아의 놀이에 참여하여 놀이를 확장시키는 적극적인 참여자, 비계설정을 통해 영아의 놀이를 발달시키는 놀이파트너로써 영아의 놀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2. 결론 및 제언

앞에서 논의한 본 연구의 결과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상호주의하기에서 영아의 주의를 전환시키고자 하는 어머니의 주

도행동은 ‘소극적 개입’, ‘유지’, ‘확장’ 등의 세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소극적 개입’ 집단의 어머니는 영아의 주의를 전환시키기 위해 개입하는 행동을 많이 보이고, ‘유지’ 집단의 어머니는 영아에게 제시한 놀이감의 고유기능과 관련된 활동을 함으로 영아의 주의를 유지시키는 행동을 하였다. 또한 ‘확장’ 집단 어머니는 제시한 놀이감을 다른 활동으로 응용, 연합하여 활동함으로 영아의 주의를 확장시키는 행동을 많이 하였다.

둘째, 어머니 주도행동 유형별 영아의 무관심 반응과 탐색 행동은 어머니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개입’ 집단의 어머니들의 영아들은 탐색반응을 가장 많이 나타냈고, ‘확장’ 집단 어머니들의 영아들은 무관심 반응을 가장 적게 나타내었다. 제시한 놀이감의 고유기능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는 어머니들의 주도행동이 영아의 반응을 끌어내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영아의 주의를 전환시키기 위해 개입하는 어머니의 주도행동은 영아의 탐색 반응을 끌어내는데 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어머니 집단별 영아의 반응행동은 6,7개월 영아의 반응행동(김민화·곽금주, 2004)과 비교했을 때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12-18개월 영아의 발달적 수준을 고려한 어머니의 주도 행동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셋째, 어머니 주도행동 유형별 영아의 주도행동은 소극적 관심표현과 적극적 관심표현 행동이 어머니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극적 개입’집단 어머니들의 영아들이 적극적 관심을 표현하는 주도행동을 가장 많이 나타냈으나, 세 집단 어머니의 영아들은 전반적으로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것 보다는 높은 수준의 주도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 어머니의 영아들이 전반적으로 스스로 주도하는 행동이 높게 나타난 것은 12~18개월 영아들이 6,7개월 영아(김민화·곽금주,

2004)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회인지적 능력이 발달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영아기 사회인지적 상호작용의 발달적 과정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넷째, 놀이감을 매개로 한 영아와 어머니 상호주의하기에서 영아들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놀이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아들은 어머니를 안전기지로 삼아 새로운 놀이감에 접근을 시도하거나 놀이감의 속성을 알기 위해 만지거나 시험해보는 등 활발한 탐색활동을 하였다. 또한 놀이감을 다른 용도로 대치하거나 놀이감을 사용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짓이나 표정 등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어머니의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어머니의 놀이참여를 유도하였다. 또한 어머니들은 새로운 놀이감에 접근하는 것부터 놀이감을 다른 용도로 대치하거나, 가작화하여 놀이를 확장시키는 것과 관련한 영아의 요구에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반응하여 영아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거나 놀이감에 대한 흥미를 지속시켰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12-18개월 영아와 어머니 상호주의하기에서 나타나는 영아의 적극적인 주도행동은 보다 성숙된 사회인지적 능력을 나타낸 것으로 영아기 사회적 상호작용의 발달적 과정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었다. 또한 Saxon, Clombo, Robinson 과 Frick(2000)의 연구에서와 같이 영아기 사회적 상호작용의 발달적 패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비록 어머니의 개입과 확장, 유지 책략이 영아의 적극적인 반응행동을 이끌어내는데 자극을 제공하지 못하였으나, 영아의 적극적인 주도행동은 어머니 주도행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아의 월령이 증가함으로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것이 감소하고 영아 스스로 주도하는 능력이 발달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영아의

주도행동에 대한 적극적인 어머니의 주의책략의 발달이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영아와 어머니의 행동들은 대체적으로 월령에 따른 놀이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개입형태에 따라 놀이 내용이 달라졌으나 전반적으로 어머니의 주도와 개입은 영아의 흥미를 지속시키고, 놀이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아들은 어머니의 일방적인 지시나 설명에 따라가기보다는 자신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였고, 끊임없이 어머니와 상호작용하면서 어머니를 놀이에 참여시키고, 놀이감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등 능동적으로 놀이를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12-18개월 영아와 어머니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발달적 변화가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영아기는 초기뿐 아니라 영아기 후기에도 개별 영아의 발달적 수준을 고려한 어머니의 적절한 반응이 영아의 사회적 능력의 발달에 더 중요한 요인이라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12-18개월 영아들을 대상으로 상호주의하기를 관찰하여 12-18개월 영아의 사회인지적 능력의 발달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아기 전반에 대한 영아의 사회인지적 발달 과정을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18개월 이후 영아의 상호주의하기에서 나타나는 사회인지적 능력을 살펴보고,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영아기 전반에 대한 사회인지적 발달 과정을 설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18개월 이후가 되면 영아의 주의를 전환시키기 위한 어머니의 주의

단서가 놀이감에서 언어적 단서로 변화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언어적 발달의 한계로 영아와 어머니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의한 상호주의하기를 관찰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영아와 어머니의 언어적 의사소통에 의한 상호주의하기를 연구하여 영아의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 특성을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영아와 어머니 상호작용에서 만 1세 이후의 영아들은 어머니의 주도행동 보다는 반응행동이 더 중요한 요인임을 제안할 수 있었다. 그러나 60명의 영아를 대상으로 연구하여 근접한 수준의 차이만을 보인 결과들이 많았다. 따라서 더 많은 영아와 어머니를 참여시킨다면 보다 명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곽금주·김민화·한은주(2004). 영아-어머니 상호작용방식과 영아기 사회적 의사소통. **아동학회지**, 25(5), 111-128.
- 곽승철·이영옥(2003). 팔들기 동작훈련이 자폐성 아동의 주의공유행동에 미치는 효과. **정서·학습장애연구**, 19(3), 233-255.
- 노희연(2002). 영아의 놀이행동 이해.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민화·곽금주(2004). 장난감 중심 상호작용 상황에서 보이는 영아-어머니의 주도성과 반응성. **한국심리학회지:발달**, 17(2), 19-35.
- 김성현(2003). 만2세 영아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미(2003). 발달놀이치료가 발달장애아동의 상호주의하기와 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김정연(1996). 대상과 성별에 따른 영아의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연(2002). 자폐아동의 상호주의하기(joint attention)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리(2000). 어린 아동의 실제정서와 표면정서의 이해: 아동의 마음이론.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1-19.
- 류경(2000). 보육시설 초기적응과정의 영아 행동특징과 변화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현주(1996). 20-35개월 유아의 가상놀이 발달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성지현(2000). 1세 영아-어머니의 언어와 놀이,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명옥(2001). 2세 영아의 애착과 사회적 놀이행동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은정(2000). 마음이론 전조로서의 상호주의하기 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우현경(1998). 걸음마기 유아의 어린이집 초기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위영희(1998). 정서적 의사소통과 영아의 사회적 참조. **교육발전**, 17(1), 215-237.
- 이미란(1999). 사회적 게임에서의 영아-어머니 상호작용.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수연(2001). 영아의 단독놀이행동과 가정환경자극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숙재(1999). **유아를 위한 놀이의 이론과 실제**. 창지사
- 이주옥 · 장현주(2004). 영아의 사회적 상호작용 형태연구, **유아교육연구**, 24(5), 24-41.
- 이효신(1999). 자폐유아의 관심공유능력과 언어발달. **정서 · 학습 장애연구**, 15(2), 205-224.
- 임혜영(1999). 1, 2세 영아의 상징놀이 발달에 관한 연구-쌓기/소꿉영역을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영희(1987). 영아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연구-어머니 및 또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석진(2000). 반응성애착장애아와 자폐아의 사회인지 능력비교- 사회적 참조와 공동주의하기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윤정(2002). 놀이감과 성별에 따른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주세진(2005). 자폐아동을 위한 사회인지 능력 향상프로그램 효과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지성애·김영주·엄정례·조경서(1999). **영아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 정민사.
- 차숙영(2003). 가장놀이촉진이 자폐성 아동의 마음이론에 미치는 효과.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미숙(1992). 유아 놀이행동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Baron-Cohen, S. (1989). Perceptual role taking and protodeclarative pointing in autism.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7, 113-127.
- Baron-Cohen, S. (1993). From attention-goal psychology to belief-desire psychology: The development of a theory of mind, and it's dysfunction. In S. Baron-Cohen, H. Tager-Flusberg, & D. J. Cohen(Eds.), *Understanding other minds: perspective from autism*. Oxford University Press.
- Butterworth, G. (1991). The ontogeny and phylogeny of joint attention. In A. Whiten (Eds.), *Natural theories of mind: Evolution, Development and Simulation of Everyday Mindreading*.(pp.223-232). Oxford, England: Basil Blackwell.
- Chrman, T. (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joint attention and pretend play in autism.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 1-16.

- Csibra, G., Gergely, G., Biro, S., Koos, O., & Brockbank, M.(1999). Goal attribution without agency cues: the perception of pure reason in infancy. *Cognition*, 72, 237-267.
- Dunham, P., & Dunham, R.(1992). Lexical development during middle infancy: A mutually driven infant-caregiver proces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414-420
- Dunham, P. J., & Dunham, F.(1995). Optimal social structures and adaptive infant development. In C. Moore and P. J. Dunham (Eds). *Joint attention: Its origin and role in development* (pp.159-188).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Dunham, P. J., & Moore, C.(1995). Current themes in research on joint attention. In C. Moore and P. J. Dunham (Eds). *Joint attention: Its origin and role in development* (pp. 15-28).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Hart, B., & Risley, T. R.(1995). Meaningful differences in the everyday experience of young American children. Baltimore, MD: Paul H. Brookes Pub.
- Judy Garber, Kenneth A. Dodge(1991).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ndry, S. H., Garner, P. W., Pirie, D., & Swank, P. R.(1994). Effects of social context and mothers' requesting strategies on Down's Syndrome children's social responsiveness. *Developmental Psychology*, 30, 293-302.

- Moore, C. (1996). Theories of mind in infancy.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4, 19-40.
- Mundy, P., Sigman, M., & Kasasri, C. (1990). A longitudinal study of joint attention and language development in autistic children.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16, 335-349.
- Mundy, P., Sigman, M., & Kasasri, C. (1994). Joint attention, developmental level, and symptom presentation in young children with autism. *Development and Psychology*, 6, 389-401.
- Nelson, K. (1973). Structure and strategy in learning to talk.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38(1-2, Serial No.149)
- Newland, L. A., Roggman, L. A., & Boyce, L. K.(2001). The development of social toy play and language in infancy, *Infant Behavior & Development*, 24, 1-25.
- Peccheaux, M. G., Findji, F., & Ruel, J.(1992). Maternal scaffolding of attention between 5 and 8 moth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7, 209-218.
- Rochat, P., & Morgan, R. (1998). Detection of intentional action in infancy.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Rochat, P., & Morgan, R., & Carpenter, M. (1997). Young infants' sensitivity to movement information specifying social causality. *Cognitive Development*, 12, 537-561.

- Saxon, T. F., Clombo, J., Robinson, J. E., & Frick. (2000). Dyadic interaction profiles in infancy and perschool intelligenece,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8(1), 9-25.
- Seibert, J. M., Hogan, A. E., & Mundy, P. C. (1982). Assessing interactional competencies: The Early Social-Communication Scale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3, 244-245.
- Tomasello, M. (1995). Joint attention as social cognition. In C. Moore and P. J. Dunham(Eds), *Joint attention: Its origin and role in development* (pp. 103-130).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sociates.
- Woodward, A. L., (1998). Infants selectively encode the goal object of an actor's reach. *Cognition*, 69, 1-34.
- Woodward, A. L., (1999). Infants' ability to distinguish between purposeful and non-purposeful behaviors. *Infants Behavior and Development*, 22, 145-160.

ABSTRACT

A study on infant-mother joint attention

Roh, kyung Nam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an's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purposed to identify the patterns of initiative and responsiveness appearing in the joint attention of infants and their mothers who are at free play with playthings and, by doing so, to explain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infants' social-cognitive interaction and to examine the playing behavior of infants and their mothers appearing in infant-mother interac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60 12~18 month old infants (mean=15.8 months) and their mothers. The measuring tool developed by Newland, Roggman and Boyce (2001) was revised and used, and the interaction of each pair of infant-mother was videotaped for 15 minutes at their home. Collected data were coded through time sampling, cluster analysis and one-way ANOVA were performed according to research question, and infant-mother playing behavior appearing in their interaction was analyzed case by cas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atterns of mothers' initiative behavior trying to refresh infants' attention in joint attention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 'redirecting,' 'maintenance' and 'complex exchange.' Second, among infants' responsive behaviors, indifferent response and inquisitive respons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pattern of the mothers' initiative behavior. That is, indifferent response was observed most frequently in the infants whose mother belongs to the 'maintenance' group, and inquisitive response in the infants whose mother belongs to the 'redirecting' group. Third, among infants' initiative behaviors, passive expression of interest and active expression of interes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pattern of the mothers' initiative behavior. That is, passive expression of interest was observed most frequently in the infants whose mother belongs to the 'complex exchange' group, and active expression of interest in the infants whose mother belongs to the 'redirecting' group. However, active expression of interest was observed more frequently than passive expression of interest in the infants of all the three groups of mothers. Fourth, in interaction with their mothers, infants showed behaviors such as approaching the mother with playthings, showing interest in the nature of playthings, asking problem-solving in the use of playthings, changing the use of playthings and signaling by motion and facial expression. In addition, mothers showed playing behaviors such as participating in the infant's play, supporting the infant's imaginary play, expanding play through linguistic expression and increasing the infant's affectionate expression.

<부록 1>

영아와 어머니 상호작용에 대한 협조사항

바쁘신 중에도 이 연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어머니들께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연구는 생후 12~18개월 영아의 사회인지적 능력의 발달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놀이감을 가지고 자유놀이는 가운데 놀이 주도는 누가하는지, 놀이 주도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머님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놀이감을 가지고 영아와 15분 정도 자유놀이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놀이과정은 정확한 관찰을 위하여 비디오 촬영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찰 장소가 영아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가정이고, 어머니와 함께 놀이를 하는 것이지만 영아에게는 낯선 상황입니다. 영아가 평소보다 활발하게 놀이하지 않거나 흥분할 수 있으므로 어머니께서는 가능한 자연스럽게 행동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상호작용에서의 협조사항입니다.

- ▶ 어머니가 먼저 놀이감 상자를 열지 마시고 기다려 주세요.
 - 영아에 의해 주도되는 행동을 관찰하기 위함입니다.
- ▶ 평소 영아와 놀이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해 주세요.
 - 영아가 미소짓거나 접근행동을 보일 때 자유롭게 반응해주세요.

- 영아가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도록 지시하거나 제한하지 마세요.
- 어머니가 의도한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고 강요하거나 반복할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 어머니께서 관찰 장소 한 쪽에서 팔짱을 끼거나 마냥 쳐다만 보고 계시지 마세요.
- 영아의 복장은 편안한 것으로 입혀주세요.

- ▶ 평소 영아가 잘 가지고 논다고 가정에 비치된 놀이감을 관찰 상황에 사용하지 마시고, 제시한 놀이감을 사용해 주세요.
- ▶ 15분 놀이시간을 놀이감 소개와 정리에 많은 부분 할애하지 마세요.
- ▶ 가능한 관찰 장소 내에서 상호작용하시고, 비디오가 설치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앉아 상호작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